



제니스, 바젤월드 2019에서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의 출시를 축하하다

제니스는 3월 21일 목요일 새로운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의 런치를 축하하는 화려한 High Frequency Night(고주파수의 밤)를 개최함으로써 브랜드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600명이 넘는 게스트, 기자, 리테일러, 인플루언서, 브랜드의 친구들은 독보적인 현대성을 자랑하는 공간에서 이브, 타냐 라 크루아, 로스트 프리퀀시스 등의 국제 뮤직 셀러브리티들과 제니스 브랜드의 친구 스위즈 비츠의 비트에 맞춰 다 함께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나누었다.

이 고주파수 테마의 이벤트는 먼 미래에서 온 듯한 초현대식 하이테크 무대장치 속에서 진행되었다. LED 아트로 장식한 터널과 무대를 수놓는 웅장한 프로젝션 매핑, 미래적인 믹솔로지스트가 서빙하는 비현실적인 칵테일...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고, 더 옛지었고, 더 다이내믹한 것을 추구하는 제니스의 정신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 활기찬 공간은 미래의 시계공학을 인도할 새로운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의 세계로 완전히 몰입하기에 이상적인 배경을 형성했다. 극도의 고주파수인 18Hz(대부분의 시계는 4Hz)로 박동하며 2일간의 여유로운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는 단절적 기술에 힘입어 독보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제니스 공방이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한 단일 부품인 Zenith Oscillator(제니스 오실레이터)가 바로 그것이다. 경량 티타늄과 에어로니스 - 혁신적인 알루미늄-폴리머 복합소재 - 로 만든 케이스가 현대적인 구조주의 디자인을 만났다.

미국 그래미상을 수상한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 이브, 하우스 DJ이자 프로듀서 타냐 라 크루아, 슈퍼스타 DJ 로스트 프리퀀시스의 라이브 공연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기 아티스트들의 비트에 맞춰 늦은 시각까지 이어진 축하와 새로운 시작의 밤은, 제니스 브랜드의 친구이자 데피 파트너이며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 프로듀서이자 기업가인 스위즈 비츠의 강렬한 음악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제니스가 어떻게 메커니컬 워치메이킹에 혁명을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최신작이 일으킨 지각변동에 어울리는, 혁신적인 축하행사였다.

제니스: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

1865년 이래 제니스는 진정성과 대담함, 열정을 가지고 탁월성, 정확성, 혁신의 지평을 넓혀 왔다. 비전을 가진 워치메이커 조르주 파브르-자코가 르 로클에 공방을 설립한 이래 제니스는 크로노미터의 정확도로 널리 인정을 받아왔다. 한 세기 반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제니스는 2,333개의 크로노미터 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수립하였다. 10분의 1초 단위의 측정이 가능한 전설적인 1969 El Primero(1969 엘 프리메로) 칼리버로 명성을 얻은 이래 제니스 공방은 600개가 넘는 무브먼트를 개발하였다. 오늘날 제니스는 100분의 1초 단위 측정이 가능한 Defy El Primero 21(데피 엘 프리메로 21) 등 다양한 모델로 매혹적인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고 있다. 역동적이고 아방가르드적 사고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재무장한 제니스는 자사의 미래와...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를 써 나가고 있다.



프레스 룸

추가 사진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pressroom.zenith-watches.com/login/?redirect_to=%2F&reauth=1